

## 送年有感

安元泰(國立公園協會 理事·事務局長)



1981年은 物質的인 期待感과 豊饒로움 보다 알차고 쁘듯한 充足感을 느끼고 바라는 價値觀, 生活意識의 기틀이 뿌리를 내리게 된 한 해였다.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期間의 最終年度로서 200億弗의 輸出을 해냈고 第1次 國土綜合開發計劃期間의 마지막 해로서 全國土 1日生活圈에 立脚한 새로운 開發與件을 造成하였다. 이제 經濟開發計劃은 經濟社會發展計劃으로 모습을 펼치게 되었고, 國土綜合開發計劃은 利用·整備에 큰 比重을 두는 政策의 轉換을 다져놓은 해이기도 하다.

國土自然의 代表的 景觀地域인 國立公園을 保護하고 利用을 增大하려는 國民運動의 先導主體를 맡고나선 우리 國立公園協會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견디면서 國立公園의 指定擴大, 國立公園의 保護와 利用의 均衡化등을 위한 計劃의 立案에 參與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汎國民的인 國立公園運動의 擴散은 미쳐 엄두도 내지 못한 형편인채 10年을 넘기게 되었다.

「自然이 破損되고 生態系가 破壞되는 環境속에서는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데에서 비롯된 自然保護運動이 다투어 번져지는 過程에서 自然은 무엇이건 그대로 두어야 하는양 우겨다짐으로 開發을 가로막는 추세가 드세어지는 한편 開發·發展을 내세워 自然破損도 마다하지 않는 開發行爲가 아직도 적지 않는 속에서 保護와 利用의 均衡化는 어렵고 까다로운 일이어서 우리 國立公園協會에게는 너무나 벅차고 힘겨운 일이었다.

우리 國立公園協會의 活動이 여리고 무리었던 것은 意欲만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犯할까 두려워 지나치리만큼 몸을 사려온 때문이란 변명할 수도 있겠으나 정말은 時代感覺, 國民意識, 政策方向 등 우리의 活動與件과 基盤의 激變·進展에 適應하지 못한데에서 빚어진 不振과 萎縮이었음을 솔직하게 反省하지 않을 수 없다.

理想을 지니지 못한 現實追從者만으로 만족할 수 없드시 理想에만 눈을 데고 現實에 발딛지 못한 蒙遊病者일 수는 더욱 없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國立公園協會는 오늘 우리에게 맞는 國立公園運動을 끈기 있고 힘차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짜고 터전을 닦아야 하며 여기에 뜻을 함께한 會員이 모이고 活動할 수 있어야 겠다.

우리 國立公園協會의 發展을 期待하며 聲援해 주신 많은 분들과 國立公園運動에 參與하는 것을 보람으로 함께 해주신 會員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열매맺어 새해부터는 새 모습으로 活氣 넘치는 國立公園協會가 되리라 確信하고 힘을 다해 보리라 다짐한다.